

01	02	03	04	05
㉒	㉔	㉒	㉕	㉓
06	07	08	09	10
㉓	㉒	㉑	㉑	㉒
11	12	13	14	15
㉒	㉑	㉕	㉓	㉔
16	17	18	19	20
㉔	㉓	㉔	㉑	㉕

01 정답: ㉒

- ㉑, ㉔, ㉕은 사회·문화 현상, ㉒, ㉓은 자연 현상이다.
- ㉒ 자연 현상은 존재 법칙을 따른다.

오답 풀이

- ㉑ 사회·문화 현상은 인과 관계가 상대적으로 분명하지 않다.
- ㉓ 사회·문화 현상은 몰가치적이지 않고 가치 함축적이다.
- ㉔ 자연 현상은 개연성이 아닌 필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 ㉕ 사회·문화 현상은 특수성이 나타난다.

02 정답: ㉔

다음 글에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 ㉒.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인간이 상황 정의에 기초하여 행동한다고 본다.
- ㉓.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개인의 행위가 상황의 주관적 해석에 기초한다고 본다.

오답 풀이

- ㉑. 개인에 대한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중시하는 것은 기능론 또는 갈등론이다.
- ㉔. 사회가 가진 균형 회복 능력에 대한 강조를 가지는 것은 기능론이다.

03 정답: ㉒

A는 관료제, B는 탈관료제이다.

- ㉒ 탈관료제 조직 내에서의 명확한 규칙과 역할 분담에 대한 구성원 간 합의는 조직 내 명확하지 않은 책임 소재로 인해 발생하는 무사안일주의가 생겨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㉑ 탈관료제는 비공식적인 통제 방식이 아닌 공식적인 통제 방식에 따라 운영된다. 따라서 수평적 의사소통과 팀 중심의 협업은 비공식적인 통제 방식의 도입에 따른 결과에 해당하지 않는다.
- ㉓ 관료제에 비해 탈관료제는 구성원의 창의성이 발휘되기 용이하다.
- ㉔ 관료제와 달리 탈관료제는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용이하다.
- ㉕ 탈관료제에 비해 관료제는 업무 담당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이 작다.

04 정답: ㉕

- ㉕ 다음 글의 필자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콘텐츠와 매체는 빠르고 직관적인 즐거움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람들은 짧고 자극적인 장면을 선호하게 되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화 소비 방식은 사회 현상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역설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 글의 필자가 강조하는 대중문화의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즉각적인 재미만을 추구하는 문화의 피상화를 유도할 수 있다.'이다.

오답 풀이

- ㉑ 다음 글에서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대중문화의 문제점에 해당한다.
- ㉒ 다음 글에서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대중문화의 문제점에 해당한다.
- ㉓ 다음 글에서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대중문화의 문제점에 해당한다.
- ㉔ 다음 글에서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대중문화의 문제점에 해당한다.

05 정답: ㉔

- ㉔ [연구 1]에서 쓰러진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한 실험 참가자의 비율은 96%로 나타났으며, [연구 2]에서 쓰러진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한 실험 참가자의 비율은 주변에 4명의 사람이 있는 경우 36%, 5명의 사람이 있는 경우 28%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 1]~[연구 3]은 '집단의 구성원 수는 개인의 이타적 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지지한다.

오답 풀이

- ㉑ 갑은 자신의 연구에서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수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㉔과 ㉕은 그 자체가 ㉑에 대한 조작적 정의인 것이 아니라, ㉑을 실제로 측정하기 위한 도구에 해당한다.
- ㉒ 갑의 연구에서 독립 변수는 '집단의 존재'이다. 따라서 집단의 존재를 설정한 ㉔은 독립 변수 처치에 해당하나, 집단의 존재를 설정하지 않은 ㉑은 독립 변수 처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 ㉓ 갑은 [연구 1], [연구 2], [연구 3]에서 모두 다른 실험 참가자를 모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갑은 특정 집단에 대해 사전 검사를 시행한 적이 없으므로 자신의 연구에서 사전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 ㉕ [연구 2]에서 주변에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게끔 지시받은 4명의 배우가 존재하는 경우 쓰러진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한 실험 참가자의 비율은 36%로 나타났으며, [연구 3]에서 주변에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게끔 지시받은 4명의 배우와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이게끔 지시받은 1명의 배우가 존재하는 경우 쓰러진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한 실험 참가자의 비율은 30%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 1]~[연구 3]은 '이타적 행동을 보이는 타인의 존재는 개인의 이타적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를 지지하지 않는다.

06 정답: ③

A는 공유성, B는 축적성이다.

- ㄴ. 공유성의 사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설에 세배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들 수 있다.
- ㄷ. 축적성은 문화가 세대 간 전승을 통해 더욱 풍부하고 다양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 ㄱ. 공유성은 문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형태나 내용, 의미가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 ㄹ. 축적성의 사례로 훈민정음의 자음은 원래 17자였으나 현재는 14자만 사용되는 것을 들 수 없다.

07 정답: ④

다음 글에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은 사회 명목론이다.

- ㄱ. 사회 명목론은 사회가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본다.
- ㄷ. 사회 명목론은 사회는 개인이 옳다고 믿는 규범 속에서 작동한다고 본다.

오답 풀이

- ㄴ. 개인이 사회에 의해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고 보는 것은 사회 실재론이다.
- ㄹ. 개인이 사회 체계 내에서만 존재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 것은 사회 실재론이다.

08 정답: ①

- ① ㉠은 기존 수공업에 종사하던 장인들의 모습이 급격히 자취를 감추는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하위문화가 가진 정체성의 소멸을 그 결과로 가진다.

오답 풀이

- ② ㉡은 갑국 내부의 향토 문화이나, 비물질 문화가 아닌 물질 문화이다.
- ③ ㉢은 첨단 자동화 기술이라는 지배적 문화에 저항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반문화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은 갑국이 하위문화를 주류 문화에 통합하기 위한 것이 아닌, 주류 문화와 구분되는 하위문화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 ⑤ 주어진 자료 상에서 갑국 내부에 문화 지체 현상이 나타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은 갑국 내부의 문화 지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09 정답: ①

세 번째 질문에 대해 '예'로 응답할 일탈 이론은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 차별 교체 이론이고 '아니오'로 응답할 일탈 이론은 낙인 이론이다. 이때 집단 1, 집단 2, 집단 3 모두에서 해당 질문에 대해 '예'로 응답할 일탈 이론은 2개이므로 (A, B, C)와 (A, B, D), (B, C, D) 각각 모두

에서 일탈 이론이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B는 일탈 이론이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예'로 응답할 일탈 이론은 차별 교체 이론이다. 이때 집단 1에서 해당 질문에 대해 '예'로 응답할 일탈 이론은 0개이므로 D는 차별 교체 이론이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 '예'로 응답할 일탈 이론은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이다. 이때 집단 3에서 해당 질문에 대해 '예'로 응답할 일탈 이론은 1개인데, B는 낙인 이론, D는 차별 교체 이론이므로 C는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A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다. 또한 ㉠, ㉡, ㉢은 '1', ㉣은 '0'이다.

- ① 머튼의 아노미 이론의 사례로 높은 시험 성적을 얻지 못한 학생이 이후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오답 풀이

- ② 내전으로 인해 규범이 붕괴된 사회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낙인 이론이 아닌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의 사례로 적절하다.
- ③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에게 범죄 양식을 배워 출소 후 재범을 저지르는 것은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이 아닌 차별 교체 이론의 사례로 적절하다.
- ④ 우발적으로 절도를 저지른 뒤 주위의 시선에 못 이겨 다시금 절도를 저지르는 것은 차별 교체 이론이 아닌 낙인 이론의 사례로 적절하다.
- ⑤ ㉠과 ㉡의 합은 '2', ㉢과 ㉣의 합은 '1'으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10 정답: ②

부모 세대에서 A 대비 B의 비는 0.4이므로 A의 비율은 5a%, B의 비율은 2a%인 것으로 들 수 있고, B 대비 C의 비는 1.5이므로 C의 비율은 3a%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모든 비율의 합은 100%이므로 10a%=100%, a=10이다. 따라서 부모 세대 A의 비율은 50%, B의 비율은 20%, C의 비율은 30%인 것을 알 수 있다. 자녀 세대에서 A 대비 B의 비는 1.0이므로 A의 비율은 b%, B의 비율은 b%인 것으로 들 수 있고, B 대비 C의 비는 2.0이므로 C의 비율은 2b%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모든 비율의 합은 100%이므로 4b%=100%, b=25이다. 따라서 자녀 세대 A의 비율은 25%, B의 비율은 25%, C의 비율은 50%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A에서 C로의 수직 이동과 C에서 B로의 수직 이동은 모두 상승 이동이므로 A는 하층, B는 상층, C는 중층이다. 부모 세대 하층 대비 자녀와의 계층 일치 비율은 36%이므로 부모가 하층인 자녀 세대 하층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50%×36%=전체 인구의 18%이며, 부모 세대 상층 대비 자녀와의 계층 일치 비율은 60%이므로 부모가 상층인 자녀 세대 상층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20%×60%=전체 인구의 12%이고, 부모 세대 중층 대비 자녀와의 계층 일치 비율은 80%이므로 부모가 중층인 자녀 세대 중층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30%×80%=전체 인구의 24%이다. 이를 바탕으로 갑국의 세대별 계층 구성 비율 및 계층 이동 현황을 표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부모 자녀	상층	중층	하층	전체
상층	12%			25%
중층		24%		50%
하층			18%	25%
전체	20%	30%	50%	100%

이때 부모가 중층인 자녀 세대 상층 인구는 부모가 중층인 자녀 세대 하층 인구와 같고, 부모가 중층인 자녀 세대 상층 또는 하층 인구는 전체 인구의 6%이므로 부모가 중층인 자녀 세대 상층 인구는 전체 인구의 3%, 부모가 중층인 자녀 세대 하층 인구는 전체 인구의 3%이다. 이를 바탕으로 갑국의 세대별 계층 구성 비율 및 계층 이동 현황을 완성하여 표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부모 자녀	상층	중층	하층	전체
상층	12%	3%	10%	25%
중층	4%	24%	22%	50%
하층	4%	3%	18%	25%
전체	20%	30%	50%	100%

② 부모가 하층인 자녀 세대 중층 인구는 전체 인구의 22%, 부모가 상층인 자녀 세대 하층 인구는 전체 인구의 4%이므로 전자는 후자의 5배 이상이다.

오답 풀이

- ① 부모가 중층인 자녀 세대 상층 인구는 전체 인구의 3%, 부모가 상층인 자녀 세대 중층 인구는 전체 인구의 4%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 ③ 세대 간 이동을 경험한 자녀 세대 인구는 전체 인구의 46%, 세대 간 이동을 경험하지 않은 자녀 세대 인구는 전체 인구의 54%로 전자는 후자보다 많지 않다.
- ④ 세대 간 상승 이동을 경험한 자녀 세대 인구는 전체 인구의 35%, 세대 간 하강 이동을 경험한 자녀 세대 인구는 전체 인구의 11%로 전자는 후자의 3배 이상이다.
- ⑤ 자녀 세대 계층 대비 부모 세대와의 계층 일치 비율은 상층이 48%, 중층이 48%, 하층이 72%로 하층이 가장 높고, 상층과 중층이 가장 낮다.

11 정답: ②

다음 글에 나타난 사회 변동의 방향에 대한 이론적 관점은 순환론이다.

- ㄱ. 순환론은 운명론적 시각에서 사회 변동을 설명한다.
- ㄴ. 순환론은 사회 변동을 동일한 과정의 주기적 반복으로 설명한다.

오답 풀이

- ㄴ. 사회 변동이 진보와 발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진화론이다.
- ㄷ. 사회는 미분화된 상태에서 분화된 상태로 변동한다고 보는 것은 진화론이다.

12 정답: ①

① (나)에서는 혼자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병국과 공동 참여형 축제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던 정국 간 교역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정국에서는 각자의 취향에 따라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축제 문화가 새롭게 등장하였다. 그리고 이는 정국의 축제 문화와 병국의 혼자 활동하는 문화가 합쳐진 것에 대한 결과물에 해당하므로 (나)에서는 문화 융합이 나타난다. 반면 (가)에서는 문화 융합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② (가)에서는 갑국과 을국이 교류한 결과로 갑국 내에서 가족이나 공동체가 함께 시간을 들여 식사를 준비하고 나누는 문화가 빠른 생활 리듬에 맞춰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식사 방식을 대체한 '다른 식사 방식'과 함께 향유되었으므로 문화 공존이 나타난다. 그러나 (나)에서도 병국과 정국 간 교역 이후 병국에서 개인 중심의 여가 활동에 더해 지역 단위로 함께 참여하는 축제와 행사들이 활성화되었으므로 문화 공존이 나타난다.
- ③ (나)에서는 병국과 정국 간 교역이 이루어졌으므로 직접 전파가 나타난다. 그러나 (가)에서도 갑국과 을국 간 무역을 통한 교류가 이루어졌으므로 직접 전파가 나타난다.
- ④ (가)와 (나)에서는 모두 문화 동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가)에서 갑국의 식사 방식이 다른 방식으로 대체된 것은 타 문화 체계와의 교류, 다시 말해 문화 접변에 의한 결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화 동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가)와 (나)에서는 모두 발명 또는 발견, 다시 말해 문화의 내재적 변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13 정답: ⑤

- ㄴ. 자료에는 예기 사회화와 재사회화의 사례가 모두 적혀 있지 않다.
- ㄷ. 자료에 적혀 있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는 '학교'의 1개,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는 '청년 예술가 동호회', '입주민 조합'의 2개로 전자는 후자보다 1개 적다.
- ㄹ. 자료에 적혀 있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는 '청년 예술가 동호회', '입주민 조합', '지역 커뮤니티', '기업'의 4개, 공식 조직의 개수는 '학교', '입주민 조합', '기업'의 3개로 전자는 후자보다 1개 많다.

오답 풀이

ㄱ. ㉠은 성취 지위에 해당하나, ㉡은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4 정답: ③

1모둠이 제시한 사례는 면접법, 2모둠이 제시한 사례는 실험법, 3모둠이 제시한 사례는 문헌 연구법의 사례에 해당한다. 이때 3모둠은 면접법, 5모둠은 문헌 연구법을 할당받았으므로 1모둠, 3모둠, 5모둠이 제시한 사례는 할당된 자료 수집 방법이 활용된 사례가 아니다. 이때 할당된 자료 수집 방법이 활용된 사례를 옳게 발표한 모둠은 두 모둠이므로 해당 모둠은

2모둠, 4모둠이고, B는 실험법이며, (가)에는 참여 관찰법이 활용된 사례가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A는 질문지법이고, 다섯 모둠 모두 서로 다른 자료 수집 방법이 활용된 사례를 발표했으므로 (나)에는 질문지법이 활용된 사례가 들어가야 한다.

③ 실험법은 통제된 상황 하에서 변인 간의 인과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다.

오답 풀이

- ① ㉠은 '2모둠', '4모둠'이다.
- ② 질문지법은 직관적 통찰과 감정 이입적 이해를 중시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 아니다.
- ④ '학습 환경이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질문지법이 활용된 사례이므로 (가)에 적절하지 않다.
- ⑤ '소방관의 작업 수행 환경을 알아보기 위해 1개월간 소방관들과 같이 생활하며 일상을 기록하였다.'는 참여 관찰법이 활용된 사례이므로 (나)에 적절하지 않다.

15 정답: ④

A는 사회 보험, B는 공공 부조, C는 사회 서비스이다. A 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56%, C 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31%이고 A 또는 C 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79%이므로 A와 C의 중복 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56+31-79)\% = 8\%$ 이다. 이때 중복 수혜자 중 A, C의 혜택만을 모두 받는 사람 수는 3중 수혜자 수와 같으므로 중복 수혜자 중 A, C의 혜택만을 모두 받는 사람 비율은 전체 인구의 4%, 3중 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4%이다. 또한 A 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56%, B 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30%이고 A 또는 B 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76%이므로 A와 B의 중복 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56+30-76)\% = 10\%$ 이다. 따라서 중복 수혜자 중 A, B의 혜택만을 모두 받는 사람 비율은 전체 인구의 6%이다. 그리고 B 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30%, C 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31%이고 B 또는 C 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52%이므로 B와 C의 중복 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30+31-52)\% = 9\%$ 이다. 따라서 중복 수혜자 중 B, C의 혜택만을 모두 받는 사람 비율은 전체 인구의 5%이다. 또한 A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비율은 전체 인구의 42%, B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비율은 전체 인구의 15%, C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비율은 전체 인구의 18%이고 비(非)수혜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6%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갑국의 A~C 제도에 대한 수혜자 비율과 3중 수혜자 비율, 비(非)수혜자 비율을 표에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	비율
A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42%
B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15%
C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18%
A, B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6%
B, C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5%
A, C에만 해당하는 수혜자	4%
3중 수혜자	4%
비(非)수혜자	6%

④ 중복 수혜자가 아닌 사람 수는 전체 인구의 81%, 금전적 지원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 보험 또는 공공 부조의 수혜자 수는 전체 인구의 76%이므로 전자는 후자보다 많다.

오답 풀이

- ① 3중 수혜자 수는 전체 인구의 4%, 비(非)수혜자 수는 전체 인구의 6%로 전자는 후자보다 많지 않다.
- ② 사회 보험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는 전체 인구의 42%, 사회 서비스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는 전체 인구의 18%로 전자는 후자의 2배를 초과한다.
- ③ 공공 부조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는 전체 인구의 15%, 중복 수혜자 중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 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는 전체 인구의 14%로 전자는 후자보다 적지 않다.
- ⑤ 비(非)수혜자 수는 전체 인구의 6%, 사회 보험과 공공 부조의 혜택만을 받는 중복 수혜자 수는 전체 인구의 6%로 전자는 후자보다 많지 않다.

16 정답: ④

④ 갑국의 사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특정 사회 현상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 운동의 양상이 나타난다.

오답 풀이

- ① ㉠은 외국인 출신으로 이주한 것, ㉡은 사고로 인해 보행 능력을 잃게 된 것이라는 후천적인 요인으로 인해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속하게 되었다.
- ② ㉠과 ㉡은 모두 한 개인이 여러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중첩되어 속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은 보행 능력의 상실이라는 신체적 특성을 이유로 차별을 받았으나, ㉠은 신체적 특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았다.
- ⑤ 을국의 사례에서는 과거의 사회 질서로 회귀할 것을 요구하는 사회 운동의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17 정답: ③

갑은 자문화 중심주의, 을은 문화 상대주의, 병은 문화 상대주의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③ 문화 상대주의는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기여한다.

오답 풀이

- ① 자문화 중심주의는 문화 간 우열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 ② 문화 상대주의는 타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아닌 긍정적인 인식에서 비롯된다.
- ④ 자문화 중심주의와 달리 문화 상대주의는 문화 제국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는 비판을 받지 않는다.
- ⑤ 문화 상대주의와 달리 문화 상대주의는 타문화와의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지 않는다.

18 정답: ④

④ 다음 글의 필자는 세계화가 진행되며 국가 간 경제 수준의 차이는 더욱 확산되고 있으며, 세계화로 인한 이익은 모든 사람에게 고르게 돌아가지 않고 경제적 자원은 특정한 곳으로 쏠리게 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 글의 필자가 강조하는 세계화가 가진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국가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어 일부 집단에 부가 집중된다.'이다.

오답 풀이

- ① 다음 글에서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세계화의 문제점에 해당한다.
- ② 다음 글에서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세계화의 문제점에 해당한다.
- ③ 다음 글에서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세계화의 문제점에 해당한다.
- ④ 다음 글에서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세계화의 문제점에 해당한다.

19 정답: ①

A는 상대적 빈곤, B는 절대적 빈곤이다.

- ① 소득 불평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상대적 빈곤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②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은 모두 파악에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객관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 ③ 절대적 빈곤과 달리 상대적 빈곤은 사회 구성원의 소득 분포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개념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는다.
- ④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은 모두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사회 문제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⑤ 상대적 빈곤선이 절대적 빈곤선보다 높으면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가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가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것이다.

20 정답: ⑤

갑국의 부양 인구는 t+30년이 t년의 1.2배이므로 t년의 부양 인구를 50명, t+30년의 부양 인구를 60명으로 둘 수 있으며,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 비율은 t년과 t+30년이 50%로 같으므로 t년의 전체 인구는 100명, t+30년의 전체 인구는 120명으로 둘 수 있다. 또한 갑국의 t년과 t+30년 유소년 인구는 같으므로 해당 인구를 10a명으로 둘 수 있으며, 이때 t년의 노년 인구는 (50-10a)명, t+30년의 노년 인구는 (60-10a)명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노년 부양비는 t+30년이 t년의

1.25배이고 t년의 노년 부양비는 $\{(50-10a)\text{명}/50\text{명}\} \times 100$ 이고 t+30년의 노년 부양비는 $\{(60-10a)\text{명}/60\text{명}\} \times 100$ 이다. 이때 후자는 전자의 1.25배이므로 $\{(50-10a)\text{명}/50\text{명}\} \times 100 \times 1.25 = \{(60-10a)\text{명}/60\text{명}\} \times 100$, $\{(50-10a)\text{명}/40\text{명}\} \times 100 = \{(60-10a)\text{명}/60\text{명}\} \times 100$, a=3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t년의 유소년 인구는 30명, 노년 인구는 20명이고 t+30년의 유소년 인구는 30명, 노년 인구는 30명이다. 위에서 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갑국의 연도에 따른 연령별 인구를 표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t년	t+30년
노년 인구	20명	30명
부양 인구	50명	60명
유소년 인구	30명	30명
전체 인구	100명	120명

- ⑤ 유소년 인구 비율은 t년이 전체 인구의 30%, t+30년이 전체 인구의 25%이다. 따라서 양육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t년이 t+30년보다 크다.

오답 풀이

- ① t년 대비 t+30년의 노년 인구 증가율은 100%이 아닌 50%이다.
- ② t년 대비 t+30년의 유소년 인구 감소율은 50%가 아닌 0%이다.
- ③ t+30년 전체 인구는 120명, t년 부양 인구는 50명으로 전자는 후자의 3배가 아니다.
- ④ 노년 인구 비율은 t년이 전체 인구의 20%, t+30년이 전체 인구의 25%이다. 따라서 노인 일자리의 필요성 정도는 t년이 t+30년보다 작다.

6평 기준 예상 등급 컷

- 1등급: 41점
- 2등급: 37점
- 3등급: 34점

01	02	03	04	05
⑤	④	③	①	④
06	07	08	09	10
③	③	④	①	⑤
11	12	13	14	15
④	②	②	③	④
16	17	18	19	20
③	⑤	②	①	②

01 정답: ⑤

㉠, ㉡, ㉢은 사회·문화 현상, ㉣, ㉤은 자연 현상이다.
 ⑤ 자연 현상은 확률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사회·문화 현상은 인과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 ② 자연 현상은 가치 함축적이지 않고 몰가치적이다.
- ③ 사회·문화 현상은 특수성이 존재한다.
- ④ 사회·문화 현상은 필연성이 아닌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02 정답: ④

다음 글에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은 사회 명목론이다.

- ㄴ. 사회 명목론은 집합적 속성은 개인의 속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 ㄷ. 사회 명목론은 사회 규범은 개인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본다.

오답 풀이

- ㄱ. 개인에게 사회 구조는 불가항력적이라고 보는 것은 사회 실재론이다.
- ㄷ. 개인은 사회 속에서만 존재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 것은 사회 실재론이다.

03 정답: ③

- ㄴ. 갑국의 '전통 다도 문화'는 1980년대 이후 대중들에게 알려져 다양한 연령층이 이를 접하게 되었으므로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이다.
- ㄷ. 갑국의 '전통 다도 문화'는 기존의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카페 문화와 결합하는 등 일상 속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형태로 변화하였으므로 1990년대 이후 향유층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오답 풀이

- ㄱ. 갑국의 '전통 다도 문화'는 1970년대까지 주류 문화에 저항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반문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ㄷ. 갑국의 '전통 다도 문화'는 주류 문화에 속했던 적이 없으므로 하위문화가 주류 문화로 변화한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04 정답: ①

<3 모둠>의 발표 사례는 학습성이 부각된 사례이고 E가 부각 되었으므로 E는 학습성이다. 또한 <3 모둠>의 발표 사례는 학생들이 다같이 배워 나간다는 점에서 D로도 설명이 가능하므로 D는 공유성이다. <2 모둠>이 발표한 사례는 과거에 없던 기능이라는 점에서 변동성, 그리고 더해져 나간다는 점에서 축적성이 부각되는데, 해당 모둠은 옳지 않게 발표한 모둠에 해당하므로 B는 변동성 또는 축적성이 아니다. 따라서 B는 전체성이다. 그리고 <1 모둠>이 발표한 사례는 옳지 않은 사례이고 해당 사례는 변동성이 부각된 사례이므로 A는 축적성, C는 변동성이다.

- ① 축적성은 문화는 세대 간 전승되면서 새로운 요소가 추가 되어 점점 더 풍부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속성이다.
- 오답 풀이
- ② 문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형태나 내용, 의미가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 속성은 전체성이 아니라 변동성이다.
- ③ 문화의 각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의미하는 속성은 변동성이 아니라 전체성이다.
- ④ 문화가 상징을 통해 후천적으로 학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속성은 공유성이 아니라 학습성이다.
- ⑤ 문화가 한 사회 구성원의 공통된 생활 양식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속성은 학습성이 아니라 공유성이다.

05 정답: ④

- ④ 갑은 모둠 C, 모둠 D가 기록한 모둠 A, 모둠 B의 활동 과정이라는 1차 자료와, 모둠 C, 모둠 D가 모둠 A, 모둠 B에 대해 기록한 상대 모둠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한 발언과 부정적으로 언급한 발언의 빈도라는 1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반면 갑은 그의 연구에서 2차 자료를 활용하지 않았다.

오답 풀이

- ① 모둠 A와 모둠 B 모두에서, 같은 과제를 독립적으로 수행한 1일 차에 비해 한 곳에 모여 과제를 수행하게끔 한 2일 차에서 상대 모둠의 입장을 이해하거나 수용하려는 긍정적 발언이 증가하였고, 일방적인 비판 발언은 감소하였다. 따라서 협동 과업 경험이 타 집단에 대한 공감 수준을 높일 것이라는 가정 ㉠은 갑의 연구에 따르면 수용된다.
- ② 모둠 A와 B는 1일 차에는 '협동 과업 경험'이라는 실험 처치를 받지 않았으므로 모두 통제 집단에, 2일 차에는 실험 처치를 받았으므로 모두 실험 집단에 해당하나, 모둠 C와 D는 1일 차와 2일 차 모두에서 통제 집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은 '협동 과업 경험'이라는 독립 변수에 대한 처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은 모둠 C, 모둠 D가 기록한 모둠 A, 모둠 B의 활동 과정이라는 결과물과, 모둠 C, 모둠 D가 모둠 A, 모둠 B에 대해 기록한 상대 모둠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한 발언과 부정적으로 언급한 발언의 빈도라는 결과물을 포함한다. 반면 모둠 A와 모둠 B가 과제를 수행하여 만들어 낸 ㉣과 ㉤이라는 결과물은 ㉢에 포함되지 않는다.

06 정답: ③

A는 자문화 중심주의, B는 비교론적 관점, C는 상대론적 관점이다.

③ 비교론적 관점은 각 사회의 문화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지님을 전제한다.

오답 풀이

- ①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문화의 정체성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지 않는다.
- ② 자문화 중심주의는 문화를 이해가 아닌 평가의 대상으로 본다.
- ④ 문화는 그것이 발생한 사회의 역사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의미와 가치를 지님을 강조하는 것은 비교론적 관점이 아닌 상대론적 관점이다.
- ⑤ 문화의 각 구성 요소가 갖는 의미를 다른 문화 요소 및 전체와의 유기적인 관련 속에서 파악하는 것은 상대론적 관점이 아닌 총체론적 관점이다.

07 정답: ③

③ C국에서는 한 기업이 B국의 공연 양식에 자국에서 유행하던 방송 시스템을 결합하였고, 이는 C국에서 큰 유행을 끌게 되었으므로 문화 융합이 나타났다. 반면 A국과 B국에서는 문화 융합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A국과 B국에서는 모두 자국 전파가 나타나지 않는다. A국의 예술가들이 자국의 전통 축제 문화에서 영감을 얻어 이를 무대 공연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은 타 문화 체계의 문화 요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므로 자국 전파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B국에서는 A국의 공연 양식이 자국에 도입됨에 따라 크게 유행을 끌었다는 것에서, C국에서는 B국의 공연 양식 원본이 크게 유행을 끌었다는 것에서 문화 공존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A국 역시 C국의 공연 양식이 해당 국가 내부에서 향유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문화 공존이 나타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④ C국에서는 B국의 공연 양식이 SNS를 통해 전파되었으므로 간접 전파가 나타났다. 그러나 B국에서 공연 양식이 SNS를 통해 크게 유행을 끈 것은 매개체를 이용해 문화 요소가 새롭게 전파된 사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간접 전파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A국과 B국에서는 C국의 공연 양식이 공연을 통해 해당 국가 내에서 향유되기 시작했으므로 직접 전파가 나타났다. 그러나 C국에 전파된 B국의 공연 양식은 매개체를 통해 간접 전파의 형태로 나타났으므로 C국에서는 직접 전파가 나타나지 않았다.

08 정답: ④

④ 을의 게시판에 적혀 있는 2차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는 '서적', '실험 동아리', '대학', '생명과학과'의 4개, 병의 게시판에 적혀 있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는 '외국어 학

원', '경영학과'의 2개로 전자는 후자보다 2개 많다.

오답 풀이

- ① ①은 을이 현재 획득한 지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을의 성취 지위가 아니다.
- ② 자료에서는 역할 갈등과 재사회화의 사례를 모두 확인할 수 없다.
- ③ 갑의 게시판에 적혀 있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는 'SNS', '기업', '방송부'의 3개, 을의 게시판에 적혀 있는 공식 조직의 개수는 '대학', '생명과학과'의 2개로 전자와 후자는 같지 않다.
- ⑤ 병의 게시판에 적혀 있는 이익 사회의 개수는 '스타트업', '외국어 학원', '경영학과'의 3개, 갑의 게시판에 적혀 있는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는 '방송부'의 1개로 전자는 후자보다 1개 많지 않다.

09 정답: ①

갑은 을보다 높은 점수를, 병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했으므로 갑은 1점, 을은 0점, 병은 2점을 기록했다. 따라서 병이 제시한 첫 번째 설명은 옳은 설명이므로 C는 낙인 이론이다. 이때 갑이 제시한 두 번째 설명이 옳은 설명일 경우 D는 차별 교제 이론이 되는데, 이 경우 A, B는 각각 뒤르캤의 아노미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 중 하나가 되어 을이 제시한 첫 번째 설명이 옳은 설명이 되어 모순이다. 따라서 갑이 제시한 두 번째 설명은 옳지 않은 설명이고, 첫 번째 설명은 옳은 설명이므로 A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 B는 차별 교제 이론, D는 뒤르캤의 아노미 이론이다. 또한 을은 0점을 획득했으므로 (가)에는 옳지 않은 설명이 들어가야 하고, 병은 2점을 획득했으므로 (나)에는 옳은 설명이 들어가야 한다.

① 머튼의 아노미 이론의 사례로 쉽게 돈을 버는 사람을 보고 부자가 되고 싶던 실업자가 절도를 시작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오답 풀이

- ② 폭행 전과가 생긴 사람이 스스로를 전과자로 인식해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는 차별 교제 이론이 아닌 낙인 이론의 사례로 적절하다.
- ③ 내전으로 인해 규범이 붕괴된 사례에서 범위를 저지르는 것은 낙인 이론이 아닌 뒤르캤의 아노미 이론의 사례로 적절하다.
- ④ 'B는 D와 달리 타인과의 상호 작용이 일탈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는 옳은 설명이고, (가)에는 옳지 않은 설명이 들어가야 하므로 해당 설명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 ⑤ 'C는 B와 달리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고 본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고, (나)에는 옳은 설명이 들어가야 하므로 해당 설명은 (나)에 들어갈 수 없다.

10 정답: ⑤

자녀 세대 계층 A에서는 부모보다 계층이 낮은 경우와 부모보다 계층이 높은 경우가 모두 존재하므로 A는 중층, 자녀 세대 계층 B에서는 부모보다 계층이 높은 경우만 존재하므로 B는 상층, 자녀 세대 계층 C에서는 부모보다 계층이 낮은 경우

만 존재하므로 C는 하층이다. 따라서 부모 세대 상층 비율은 전체 인구의 10%, 부모 세대 중층 비율은 전체 인구의 40%, 부모 세대 하층 비율은 전체 인구의 50%이며, 자녀 세대 상층 비율은 전체 인구의 30%, 자녀 세대 중층 비율은 전체 인구의 50%, 자녀 세대 하층 비율은 전체 인구의 20%이다. 이때 자녀 세대 중층 인구 대비 부모보다 계층이 낮은 경우는 10%이므로 부모가 상층인 자녀 세대 중층 인구 비율은 $50\% \times 10\%$ = 전체 인구의 5%이고, 자녀 세대 중층 인구 대비 부모보다 계층이 높은 경우는 50%이므로 부모가 하층인 자녀 세대 중층 인구 비율은 $50\% \times 50\%$ = 전체 인구의 25%이다. 따라서 부모가 중층인 자녀 세대 중층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20%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녀 세대 상층 인구 대비 부모보다 계층이 높은 경우는 90%이므로 부모와 계층이 같은 경우는 10%이며, 따라서 부모가 상층인 자녀 세대 상층 인구 비율은 $30\% \times 10\%$ = 전체 인구의 3%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녀 세대 하층 인구 대비 부모보다 계층이 낮은 경우는 65%이므로 부모와 계층이 같은 경우는 35%이며, 따라서 부모가 하층인 자녀 세대 하층 인구 비율은 $20\% \times 35\%$ = 전체 인구의 7%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갑국의 세대별 계층 구성 비율 및 계층 이동 현황을 표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부모 \ 자녀	상층	중층	하층	전체
상층	3%			30%
중층	5%	20%	25%	50%
하층			7%	20%
전체	10%	40%	50%	100%

이에 따라 부모가 상층인 자녀 세대 하층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2%, 부모가 하층인 자녀 세대 상층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18%가 된다. 이를 바탕으로 갑국의 세대별 계층 구성 비율 및 계층 이동 현황을 완성하여 표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부모 \ 자녀	상층	중층	하층	전체
상층	3%	9%	18%	30%
중층	5%	20%	25%	50%
하층	2%	11%	7%	20%
전체	10%	40%	50%	100%

⑤ 부모 세대 계층 대비 자녀 세대와의 계층 일치 비율은 상층이 30%, 중층이 50%, 하층이 14%이므로 상~하층 중 중층이 가장 높고, 하층이 가장 낮다.

오답 풀이

- ① 부모가 중층인 상층 자녀 인구는 전체 인구의 9%, 부모가 하층인 상층 자녀 인구는 전체 인구의 18%로 전자는 후자의 2배가 아니다.
- ② 부모가 상층인 중층 자녀 인구는 전체 인구의 5%, 부모가 상층인 하층 자녀 인구는 전체 인구의 2%로 전자는 후자의

2배가 아니다.

- ③ 세대 간 이동을 경험한 자녀 세대 인구는 전체 인구의 70%, 경험하지 않은 자녀 세대 인구는 전체 인구의 30%로 전자는 후자의 2배 이하다.
- ④ 세대 간 상승 이동을 한 자녀 세대 인구는 전체 인구의 52%,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한 자녀 세대 인구는 전체 인구의 18%로 전자는 후자의 3배 이상이 아니다.

11 정답: ④

- ④ 다음 그림에서는 가짜뉴스 등 왜곡된 사실이 정보화에 의해 퍼져나가며 대중들이 이에 현혹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그림에서 작가가 강조하는 정보화의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퍼져 사회적 혼란이 초래된다.'이다.

오답 풀이

- ① 그림에서 언급되지 않은 정보화의 문제점에 해당한다.
- ② 그림에서 언급되지 않은 정보화의 문제점에 해당한다.
- ③ 그림에서 언급되지 않은 정보화의 문제점에 해당한다.
- ⑥ 그림에서 언급되지 않은 정보화의 문제점에 해당한다.

12 정답: ②

다음 글에서 사회 변동의 방향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은 진화론이다.

- ㄱ. 진화론은 사회는 미분화된 상태에서 분화된 상태로 변동한다고 본다.
- ㄴ. 진화론은 사회 변동이 곧 진보와 발전을 의미한다고 본다.
- 오답 풀이
- ㄷ. 사회 변동을 동일한 과정의 주기적 반복으로 설명하는 것은 순환론이다.
- ㄹ. 운명론적 시각에 의거해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것은 순환론이다.

13 정답: ②

A는 관료제, B는 탈관료제이다.

- ㄱ. 관료제에 비해 탈관료제는 과업 수행 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낮다.
- ㄴ. 탈관료제와 달리 관료제는 경력에 따른 보상 방식을 중시한다.
- 오답 풀이
- ㄷ. 관료제에 비해 탈관료제는 상황식 의사 결정 방식이 지배적이다.
- ㄹ. 탈관료제에 비해 관료제는 무사안일주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14 정답: ③

을은 3점을 얻었으므로 네 가지 특징에 대한 을의 답란 중 세 개는 옳은 답, 한 개는 옳지 않은 답이다. 옳지 않은 답이 첫 번째 특징에 대한 답란인 경우 나머지 특징에 대한 답란은 모두 옳은 답이 되고, 이에 따라 B는 참여 관찰법, C는 실험법, D는 질문지법이 되어 A는 면접법이 된다. 그리고 이 경

우 같은 두 번째 특징에만 옳은 답을 쓴 것이 되어 1점을 얻은 것에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 을이 쓴 답란 중 옳지 않은 답이 두 번째 특징에 대한 답란인 경우 나머지 특징에 대한 답란은 모두 옳은 답이 되고, 이에 따라 C는 실험법, D는 질문지법, B는 면접법이 되어 A는 참여 관찰법이 된다. 그러나 이 경우 같은 모든 특징에 옳지 않은 답을 쓴 것이 되어 1점을 얻은 것에 모순이다. 을이 쓴 답란 중 옳지 않은 답이 세 번째 특징에 대한 답란인 경우 나머지 특징에 대한 답란은 모두 옳은 답이 되고, 이에 따라 B는 참여 관찰법이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첫 번째 특징에 대한 을의 답란 역시 옳지 않은 답이 되어 모순이다. 을이 쓴 답란 중 옳지 않은 답이 네 번째 특징에 대한 답란인 경우 나머지 특징에 대한 답란은 모두 옳은 답이 되고, 이에 따라 B는 참여 관찰법이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첫 번째 특징에 대한 을의 답란 역시 옳지 않은 답이 되어 모순이다. 따라서 을이 쓴 답란 중 옳지 않은 답이 첫 번째 특징에 대한 답란인 경우만 모순이 발생하지 않고, A는 면접법, B는 참여 관찰법, C는 실험법, D는 질문지법이다.

③ 실험법에 비해 질문지법은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자료 수집에 용이하다.

오답 풀이

- ① 면접법과 참여 관찰법은 모두 비구조화된 도구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 ② 참여 관찰법과 달리 실험법은 조사 대상자와의 정서적 교감을 중시하지 않는다.
- ④ 질문지법과 달리 면접법은 주로 질적 연구에서 활용된다.
- ⑤ 면접법, 참여 관찰법, 실험법, 질문지법은 모두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15 정답: ④

A는 사회 보험, B는 공공 부조이다. 따라서 ㉠에는 사회 보험과 공공 부조 모두에 해당하는 특징이, ㉡에는 공공 부조에만 해당하는 특징이 들어가야 한다. t년 중복 수급자 비율, 다시 말해 A와 B 중복 수급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10%이고, t년 A 수급자 중 B 수급자의 비율, 다시 말해 A 수급자 중 A와 B 중복 수급자의 비율은 20%이다. 따라서 t년 A 수급자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50%임을 알 수 있다. 또한 t년 제도 수급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72%인데, 이로부터 B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22%인 것을 알 수 있다. t+50년 중복 수급자 비율, 다시 말해 A와 B 중복 수급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15%이고, t+50년 A 수급자 중 B 수급자의 비율, 다시 말해 A 수급자 중 A와 B 중복 수급자의 비율은 15%이다. 따라서 t+50년 A 수급자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60%임을 알 수 있다. 또한 t+50년 제도 수급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80%인데, 이로부터 B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20%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갑국의 t+50년 전체 인구는 t년 전체 인구의 2배이므로 전자를 200명, 후자를 100명으로 둘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연도별 A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 B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 A와 B 중복 수급자 수, 비(非)수급자 수를 표에 나타내면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	t년	t+50년
A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40명	90명
A와 B 중복 수급자	10명	30명
B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22명	40명
비(非)수급자	28명	40명

④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사회 보험의 수급자에만 해당하는 인구는 t+50년이 90명, t년이 40명으로 전자는 후자의 2배 이상이다.

오답 풀이

- ① ㉠에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존재함'이 적절하나, ㉡에는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됨.'이 적절하지 않다.
- ② 비(非)수급자의 수는 t+50년이 40명, t년이 28명으로 후자는 전자보다 많지 않다.
- ③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큰 공공 부조의 수급자에만 해당하는 인구는 t+50년이 40명, t년이 22명으로 전자는 후자의 2배 이상이 아니다.
- ⑤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공공 부조의 수급자 비율은 t년이 전체 인구의 32%, t+50년이 전체 인구의 35%로 전자는 후자보다 높지 않다.

16 정답: ③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빈곤의 유형은 절대적 빈곤이다.

- ㄱ. 절대적 빈곤은 사회 구성원들의 소득 분포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개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 ㄴ. 절대적 빈곤은 판단에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활용한다.

오답 풀이

ㄷ. 절대적 빈곤은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17 정답: ⑤

⑤ ㉠과 달리 ㉡은 청원 활동을 통한 관련 법령의 개정을 요구하는, 사회 제도적 수단을 활용하여 사회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사회 운동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갑국의 사례에서는 개인이 선천적 요인이 아닌, 외국 출신이라는 후천적 요인으로 인해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속한 양상이 나타난다.
- ② 을국의 사례에서는 개인이 복수의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속한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③ ㉠은 고정관념의 철폐라는 의식 개혁을 목적으로 한 사회 운동에 해당하나, ㉡은 의식 개혁을 목적으로 한 사회 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과 ㉡은 모두 현재의 사회 구조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회 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18 정답: ②

다음 글에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 ㄱ.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사회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한다고 비판받는다.
 - ㄴ.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인간이 상황 정의에 기초하여 행동한다고 본다.
- 오답 풀이
- ㄷ. 사회적 지위는 기득권층에 의해 강제된 것이라고 보는 것은 갈등론이다.
 - ㄹ. 대립과 갈등을 사회의 본질적 속성으로 보는 것은 갈등론이다.

19 정답: ①

A는 갈등론, B는 기능론이다.

- ① 갈등론과 달리 기능론은 사회 불평등을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현상으로 본다.

오답 풀이

- ② 기능론과 달리 갈등론은 차등 보상이 개인의 성취동기를 자극한다고 보지 않는다.
- ③ 기능론과 갈등론 중 개인의 귀속적 요인이 사회 불평등 현상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는 것은 갈등론뿐이다.
- ④ (가) 단체는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를 지위에 따른 책임의 문제가 아닌, 끼친 영향에 따른 책임의 문제로 다루고자 한다.
- ⑤ (나) 단체는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의 해결 방안을 효율적인 사회적 희소가치의 활용에서 찾지 않는다. (나) 단체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사회적 희소가치의 활용은 그 자체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국제 분업과 협력의 결과에 해당하는 현상이다.

20 정답: ②

t년에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는 동일하므로 해당 인구를 100명으로 둘 수 있으며, t년 대비 t+50년에 갑국의 전체 인구는 50% 증가하였으므로 t+50년 갑국의 전체 인구는 150명, t년 대비 t+50년에 을국의 전체 인구는 20% 증가하였으므로 t+50년 을국의 전체 인구는 120명인 것을 알 수 있다. t년 갑국의 전체 인구 대비 유소년 인구 비율은 30%이므로 해당 연도 유소년 인구는 30명이며, 노년 부양비는 40이므로 해당 연도 부양 인구를 5a, 노년 인구를 2a로 둘 수 있다. 이때 전체 인구는 100명이므로 $30명 + 7a = 100명$, $a = 10명$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t년 갑국의 부양 인구는 50명, 노년 인구는 20명이다. t년 을국의 전체 인구 대비 유소년 인구 비율은 25%이므로 해당 연도 유소년 인구는 25명이며, 노년 부양비는 25이므로 해당 연도 부양 인구를 4b, 노년 인구를 b로 둘 수 있다. 이때 전체 인구는 100명이므로 $25명 + 5b = 100명$, $b = 15명$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t년 을국의 부양 인구는 60명, 노년 인구는 15명이다. t+50년 갑국의 전체 인구 대비 유소년 인구 비율은 10%이므로 해당 연도 유소년 인구는 15명이며, 노년 부양비는 35이므로 해당 연도 부양 인구를 20c, 노년 인구를 7c로 둘 수 있다. 이때 전체 인구는 150명이므로 $15명 + 27a = 150명$, $a = 5명$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t+50년 갑국의 부양 인구는 100명, 노년 인구는 35

명이다. t+50년 을국의 전체 인구 대비 유소년 인구 비율은 20%이므로 해당 연도 유소년 인구는 24명이며, 노년 부양비는 60이므로 해당 연도 부양 인구를 5d, 노년 인구를 3d로 둘 수 있다. 이때 전체 인구는 120명이므로 $24명 + 8d = 120명$, $d = 12명$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t+50년 을국의 부양 인구는 60명, 노년 인구는 36명이다. 위에서 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갑국과 을국의 연도에 따른 연령별 인구를 표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t년		t+50년	
	갑국	을국	갑국	을국
노년 인구	20명	15명	35명	36명
부양 인구	50명	60명	100명	60명
유소년 인구	30명	25명	15명	24명
전체 인구	100명	100명	150명	120명

- ② t+50년 갑국의 부양 인구는 100명, t년 을국의 전체 인구는 100명으로 전자와 후자는 같다.

오답 풀이

- ① t년 갑국의 유소년 인구는 30명, t+50년 을국의 노년 인구는 36명으로 전자는 후자와 같지 않다.
- ③ 노령화 지수는 t+50년 을국이 150, t년 갑국이 200/3으로 전자는 후자의 2배 이상이다.
- ④ 총부양비는 t년 갑국이 100, t년 을국이 200/3으로 t년에는 갑국이 을국보다 크다. 그러나 t+50년 갑국이 50, t년 을국이 100으로 t+50년에는 을국이 갑국보다 크다.
- ⑤ 유소년 부양비는 t년 갑국이 60, t+50년 을국이 40으로 전자는 후자보다 작지 않다.

6평 기준 예상 등급 컷

- 1등급: 42점
- 2등급: 38점
- 3등급: 34점